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4일 목요일 음 10월 15일 (7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30%
30%	고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7/10°C
모레 맑음 6/16°C

흐리고 한때 비

제주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C, 낮 최고기온은 10-13°C로 예상된다. 아침과 늦은 밤에 곳에 따라 기온 비가 오겠으며, 중산간 이상부터 눈이 올 수 있겠다.

해뜰 07:23	달뜰 16:26
해침 17:26	달침 06:22

물때	만조 10:08	간조 03:38
	21:49	16:37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낮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싱가포르, 올해 살인·마약범 17명 사형 집행

비판에도 “안전한 국가에 도움”

올해 싱가포르가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17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주 이를 동안 마약 밀매 혐의로 싱가포르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블룸버그에 “수감자들은 법률에 따른 완전한 절차를 보장받았다”며 “법체계에 따라 형이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당국은 올해 살인이나 마약 관련 혐의로 1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2003년 19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의 비판에도 사형 집행을 계속하



싱가포르 경찰. 연합뉴스

고 있다. 그동안 유엔과 인권 단체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효과적 대책이 아니라며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사형제가 아시아에서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며 살인이나 마약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한다고 맞섰다.

한편 현재 법적으로 사형제를 허용하거나 실제 집행을 하는 국가는 50여 개국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우리네 삶은 항해와 같아서 누구나 예외 없이 거대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을 함께 겪으며 산다. 우리는 갑자기 부딪힌 격랑 속의 불안함을 이기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곤 한다. 이 말을 남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영웅적인 순간과 깊은 좌절의 그림자가 언제나 교차하며 흘렀다. 어린 양치기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역경을 물맷돌 하나로 잡아냈던 그 영광의 순간, 다윗은 이미 자신이 달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그러나 성취의 절정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 영광의

흔들리는 시대의 나침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잊어들고 말 숙명을, 그래서 다윗은 생의 후반에 고난과 번뇌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지혜를 갈망했다. 다윗 왕은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협작으로 일컬어진 솔로몬에게 명해, 가장 기쁠 때도 마음을 불잡아 겸손해 하고, 가장 슬플 때도 희망을 품게 할 문구를 반지에 새겨 오도록 했다. 오랜 숙고 끝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손에 건넨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간결한 네 마디였다. 이 문구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보편성이 있다.

이 문장은 모든 생성된 것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담고 있다. 영광과 고통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내려놓는 깊은 성찰의 근거인 것이다. 이 지혜를 내면에 품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평정심(平靜

心)’을 유지하는 수행과 같다. 지난간 기쁨에 매달리거나 다가을 슬픔을 미리 두려워하느라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정작 발밑의 귀한 기회를 놓치지 일쑤다. 그러나 이 잡언을 통해 마음이 고요하게 정돈되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미세한 흐름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되찾게 된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서 배의 방향을 잡듯,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자만이 우주의 리듬과 완벽하게 공명해 ‘적재적소(適才適所)’의 순간을 스스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윗 왕의 생애는 용기와 지혜의 합일을 보여준다. 거인과의 육체적인 싸움을 이겨낸 영웅의 힘과,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철학적인 깨달음이 조화롭게 만난 것이다. 우리 또한 다윗의 반지로부터 그 지혜를 물려받아, 삶의 모든 역경과 영광을 겪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열린마당

‘앎에서 삶으로’ 제주가 만들어가는 인권 생태계

김민경
한국일보 독자

제주 지역사회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인권 관련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인권은 이제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민 각자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도는 인권교육을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도민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일상과 가까운 자리에서 인권을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돌봄 현장의 고민, 개인정보 보호, 고령자 권리 등 현실적 질문을 나누다 보면 인권이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기본적인 배려와 원칙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대화와 소통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역 인권 생태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인권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권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역량 강화 과정은 지속 가능한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다.

‘앎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주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며, 지역사회가 지닌 가능성을 넓히는 데도 힘이 될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순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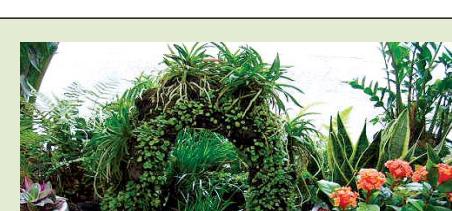
강석천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야간 순찰 업무를 처음 계획할 때만 해도, ‘이 모든 점검을 우리가 직접 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순찰을 돌며 주민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골목길 곳곳마다 꺼져있는 가로등이 적어질수록 “요즘 길이 훨씬 밝아져서 좋다”, “집 앞을 다닐 때 마음이 놓인다”는 주민들의 인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야간 순찰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지역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현장을 지날 때마다 ‘이곳은 더 밝아야 한다’, ‘이

정도면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됐고, 작은 가로등 하나도 소홀히 볼 수 없게 됐다. 비록 가로등 한두 개의 정비가 도시 전체를 즉시 변화시키기는 못 하지만 ‘한 줄기 빛이 전 리 어둠을 쫓는다’는 속담처럼, 작은 조치들이 모여 결국 전체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야간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밝기 개선만으로도 주민 체감 안전도가 뚜렷하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의 땀이 보이는 곳의 안전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 역시 깊게 실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력이지만 그 효과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작은 관심이 큰 불길을 막는다’는 옛말처럼, 작은 불빛 하나라도 유지하는 일이 지역 안전의 기초라고 믿으며 오늘도 마을의 밤길이 더 밝고 따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플라워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동서양반,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 것꽃보라 ☎ 746-0014, HP 010-3693-5563
농장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전화 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모든 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빈틈없이 꽉~꽉 채웁니다

벽, 천장,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예코방수 010-9086-8965

예코방수란?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